



자동화 생산설비 완전 밀봉이 가능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과용기전문업체 대건실업

환경오염문제 신소재로 대처한다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운동은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도 살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한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의 환경 수호 노력과 파괴 정도에 따라서 국제간의 무역마저도 이와 관련해 규제하려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린 라운드 협상」 논의가 그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때 이런 세계적 추세를 미리 예견하고 신소재 개발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업체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제과 용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정도로 대표적이 포장업체인 대건실업(대표 맹충조)이다.

75년 식품위생 위해 제과용기생산

대건실업의 처음 제과업체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1975년 5월 1일로 당시 이렇다 할만한 식품용기 하나없는 국내 포장업체의 발전을 위해서였다.

이에 맹충조 사장은 이래서는 국민식생활 향상은 요원하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계한 후 주문 제작을 의뢰해 지금의 독산동 소규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맹사장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첫 출발은 무척 어렵기만 했다. 대부분의 제과점에서 인식 부족으로 제과 용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제품의 원가만 높여 놓는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 일종의 사명감까지 느꼈다는 맹사장은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다고 한다. 포장용기가 있어야만 상품의 위생을 기할 수 있고, 제품 원가면에서도 포장을 잘해 몇 배 더 팔면 결국 큰 이익이 남는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현재는 아무리 조그만 제품이라도 개별 포장을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뒤쳐진 부분이 많으며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건실업은 기술 개발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자체 개발실을 두어 금형이나 신제품 개발에 힘쓰는 한편 외국에 나가 시장 조사를 함으로써 제과 용기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나 수시로 파악해 제품 개발



맹충조 사장

대건실업은
제품 개발에 힘쓰는 업체다.
7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개발한
POLY CLEAR MELINER FAPET 용기는
환경문제를 해결한 신소재로
끊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다.

에 반영시키고 있다. 또 자사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금형 기술자나 디자이너를 대학에 보내 교육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대건실업이 제작한 제품 수는 어림잡아 5천여종. 19년을 쌓아온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현재 전국의 제과점 중 대건의 제과용기를 쓰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폭넓은 거래선을 갖고 있다. 각종 절임식품, 건어물, 수경재배 야채 등 식품 용기 취급 거래선도 3만5천여 곳에 이를 정도로 5년전부터 이쪽 시장을 공략해 전국 농협 직판장에는 거의 대건실업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과 생산자동화 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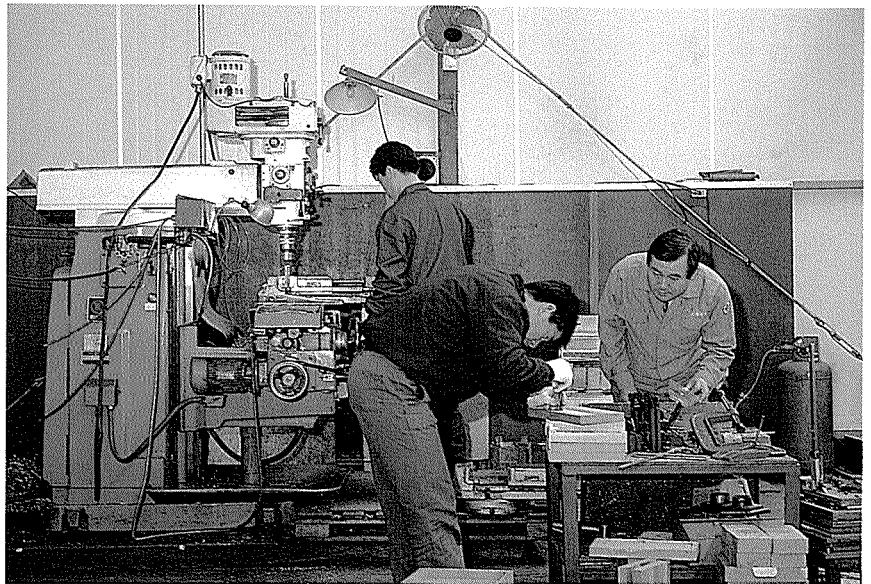
대건실업은 초기부터 주문 생산이 아닌 자사 개발 상품 생산을 원칙으로 해왔다. 생산되는 제품마다 정성을 다해 최고의 제과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대건실업은 재생용 원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식품용기의 첫째 요건이 위생인 만큼 인체에 해가 없는 완벽한 제과용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대건실업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기로 평평이 나있다. 자동화 생산설비와 자체 제작한 금형으로 제작되는 제품은 얇은 원단에 완전 밀봉이 가능한 단추모양이 가미된 것으로 최첨단 기술의 제품이다.

현재 대건실업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소재 개발과 자동화 생산계획. 대건실업은 언젠가는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몇년전부터 20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부분적인 투자를 해왔다.

7년전부터 신소재에 관심을 갖고 유럽에서 기술을 전수해 자체 개발한 'POLY CLEAR MELINER FAPET'란 소재는 산소투과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식품 보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할 수 있고, 폐기시 땅에 묻으면 1년내에 자연적으로 분해되며, 소각시 이산화탄소만을 배출하는 획기적인 신소재다.

이 신소재의 개발과 함께 대건실업은 현재 95년을 신소재·신상품 정착의 해로 설정하고 자동화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독일에서 들여온 최첨단 기계인 압공 성형기를 이용해 신소재로 제품생산을 한다는 계획인데 6월까지 이 자동화 계획이 끝나면 늦어도 95년까지는 현재 30% 수준인 신소재 이용률을



개발실을 통해 대건실업은 금형을 자체 개발, 제작한다.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환경 문제는 물론 자동화생산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생산 비용 감소와 신소재 상품가격의 단가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과업계 발전의 관건은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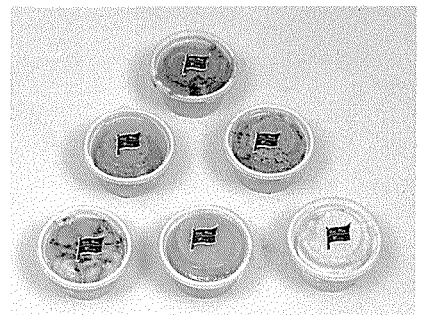
대건실업의 맹충조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과점들이 경쟁 상대인 패스트 푸드 산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고객을 유도하는 판매 전략도 중요하지만 포장에 있다고 단언한다.

경쟁 업체들은 다양한 포장으로 도전해 오고 있는데 비해 제과점의 선물용 상품 구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포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대건실업은 최근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내놓았다. 세라믹 플라스틱 케이크 밀바침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케이크 밀바침이 종이에 라미네이팅 코팅한 소재로 되어 있어 케이크를 다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비해 이 제품은 젊은이들의 자기가 아끼는 약세사리를 그 위에 놓아둘 수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식품 보관에 있어 맹충조 사장이 늘 강조하는 것이 '위생'이요, '청결'이요 보면, 버터가 묻은 채 쓰레기통에 이리저리 굴러 다니는 미관상 좋지 않은 점을 대체한 이 제품은 케이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데도 한 몫을 하리라고 주장한다.

또 이와 함께 'POLY CLEAR MELINER



대건실업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제과 용기들

FAPET' 소재를 이용해 종이 용기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아한 형태의 건과류 용기를 개발해 특허 및 의장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제과업계에서 포장은 제품의 질을 마지막으로 결정한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용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포장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는 제품 개발이 뒤따라야 하고 여기에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로 한다.

대건실업의 맹충조 사장은 자사제품의 수준을 50%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제과용기의 대명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하고 더욱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내린다.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된 대건실업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맹충조 사장의 말처럼 지난 19년간 변함없는 자세로 최고의 제과용기를 개발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 박종선 >